

#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소비 생활의 나침반 역할 할 터...

■글/허 승(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사회가** 급변하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도리어 갈증을 느낍니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자기 회사 제품이 '체일'이라고 목소리만 높이는 상업 광고나 판매원의 입에 발린 홍보성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의 탈을 쓴 광고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의 부재 시대'에 창간된 소비 생활 전문지 월간 '소비자시대'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11년 6개월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소비자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걸음마를 시작해 지금은 마음껏 뛰어다닐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소비자시대'는 앞으로도 소비 생활의 바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더욱더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울리는 각종 악덕 상술은 시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덕 사업자는 오히려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카멜레온처럼 소비자를 앞서가 화려한 무늬로 현혹합니다.

세계가 커다란 하나의 장터로 바뀌어 소비자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이옥신에 오염된 수입산 돼지고기 문제, 콜라를 먹고 배탈이 났다는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상품 선택에 혼란을 줍니다.

사업자의 악덕 상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다국적 상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소비자시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시대'는 독자 의견을 제작에 반영하는 쌍방향 잡지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입체적 편집의 보는 잡지로 7월호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 생활 전문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금년 4월부터 금융·보험·증권·의료·법률 등의 소비자 문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피해 구제를 하게 돼 보호원의 역할과 정보 제공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동안 제조물·일반 서비스 부문에 비해 낙후돼 있던 이들 전문 서비스 부문의 소비자 정보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